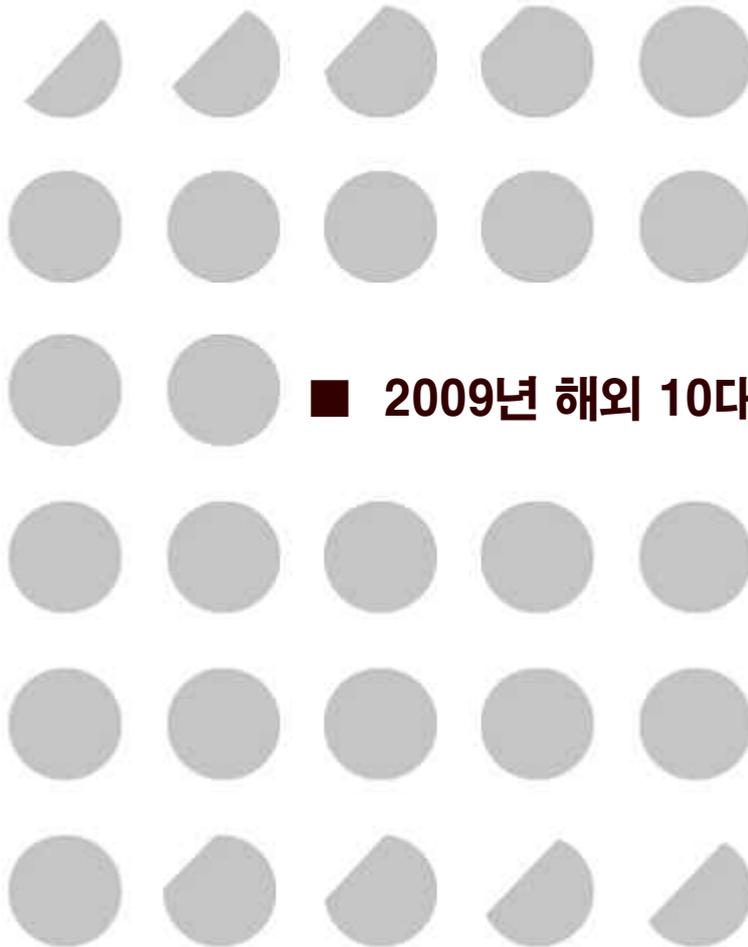




08-50 (통권 328호)

2008.1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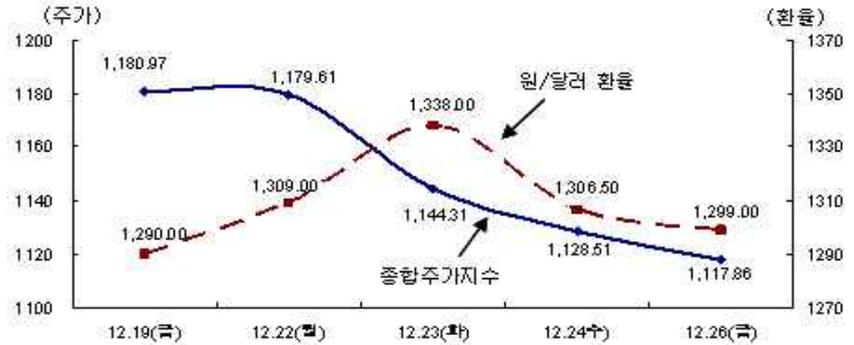
# 韓國經濟週評



■ 2009년 해외 10대 트렌드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19~12.26)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09 해외 10대 트렌드	1
주간 경제 동향	27
□ 실물 부문 : 하반기 실질임금 환란 이후 최악	27
□ 금융 부문 : 국채 금리 연중 최저치 경신	28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산업전략본부 : 한 상 완 산업전략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

## Executive Summary

---

### 1. 개요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자료를 토대로 2009년 새롭게 나타나거나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정치, 경제, 산업, 경영 분야의 10대 트렌드를 선정하였다.

### 2. 2009년 해외 10대 트렌드

#### ① 단극체제에서 무극체제로의 국제질서 전환

세계 경제는 미국 위주의 단극체제로 한동안 유지되었으나, 최근 일련의 정치 및 경제 사안에서 단일 국가 중심의 해법의 한계로 인해 수많은 국가 및 기관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 무극화 체제로 진전되고 있다. G20회의를 통한 국제질서의 개편 가능성을 보인 가운데, 미국 중심 체제 수정의 필요성은 증가하였으나, 새로운 질서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새로운 국제경제기구의 확립은 당분간 어렵지만, 국제경제기구의 감독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비중이 약화되면서 중국의 잠재력이 발휘될 것으로 전망된다.

#### ② 오바마노믹스 : Free Trade에서 Fair Trade로

제44대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는 선거기간 동안 “Fair Trade”를 강조하였고, 연방의회도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이를 지지하는 색채가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무역수지상의 불균형에 대한 시정이 강조되고,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정부보다는 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는 무역수지상의 지나친 불균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내비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는 미 연방의회는 미국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 ③ 케인즈 시대로의 회귀

시장기능의 무절제한 팽창에 따른 금융위기 발발로 정부기능 확대를 주장하는 케인즈의 경제학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시장 기능을 제약하는 대신 정부의 규제 강화 및 재정 확대를 통한 유효 수요 창출을 주장한 케인즈의 이론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 침체가 심화되면서

각국 정부는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재정지출확대와 감세 등 경기부양책을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제시된 각국 경기부양책의 실시로 인해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질 가능성이 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④ 중국 쾌(快)·중(重)·준(准)·실(实) 지침의 정착

중국 정부는 11월 초 당면한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발표한 내수확대 10대 조치의 실행지침을 「쾌중준실(快重准实)」로 설정하였다. 중국은 「쾌중준실(快重准实)」 지침으로 「내수확대 10대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김으로써 경기 급락을 방지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기부양책 실시가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경우, 이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중국 경제의 위상이 한층 제고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는 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급격한 수출 둔화로 인한 경기 급랭의 부작용을 완충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 ⑤ 이슬람경제의 성장 정체

오일달러를 기반으로 제2의 부흥을 노리던 이슬람경제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난관을 맞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4일 배럴 당 140.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두바이 유가가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난 12월 12일에는 배럴 당 42.5\$로 69.8%나 급락했다. 최근 유가 하락과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로 중동지역 석유·가스 개발이 지연되고,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오일달러 의존도가 높은 중동국가들의 석유 판매 수입 감소가 이들 국가들의 부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⑥ 마이너 마켓 (Minor Market)의 부각

2009년은 미국, EU 등 선진국 경기는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경기가 동반 침체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던 아프리카, 중남미 등 마이너 마켓이 부각되고 있다.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저개발, 미개발 국가들은 세계경기 하락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경기위축이 덜 하여 금번 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은 2008년 대비 2009년 경제 성장 하락폭이 크지 않고, 일부 국가는 정치 불안 해소로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위주의 주력시장 침체로 신흥시장 개척이 절실한 국내외 기업들에게 마이너 마켓은 매력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다.

### ⑦ 녹색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선진국들은 탄소배출권,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경제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유럽은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 할당 방식 (Top-Down)으로 저탄소 환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녹색산업을 위한 정책으로 선도시장에서의 선구자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새로운 경제 성장 활력에 대한 대안으로 '저탄소사회'라는 비전을 통한 신성장산업 발굴과 전통적인 에너지 강국으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역시 오바마 차기 대통령은 Green New Deal 정책을 발표하여 녹색성장 관련 미국의 정책적 급선회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 ⑧ 식량위기 가능성의 대두

세계 인구가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식량 위기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요 곡물의 가격 변화 추이를 보면 2006년 대비 2008년 1/4분기 말 70~80%까지 급등하였다. 식료품 가격 급등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경제 발전에 의한 식품 수요 확대 등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등 바이오 연료용 작물 수요의 가파른 상승도 한 요인이다. 앞으로 식량부족을 우려하는 일부 신흥국 중심으로 식량에 대한 수출 규제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한편, 식량 산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식품 관련 업종과 기업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 ⑨ 디레버리지 시대로 복귀 (투자은행 시대의 몰락)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붕괴에서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세기 금융산업의 모델이었던 투자은행 (Investment Bank)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그 원인은 과도한 차입투자와 첨단 금융공학으로 탄생시킨 파생상품에 대한 맹신, '고위험-고수익' 투자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형투자은행의 몰락으로 향후 국제금융시장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전성 규제의 강화로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신용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 모색이 예상된다.

### ⑩ 멀티페르소나 (Multi-Persona) 소비의 등장

페르소나(persona)란 연극배우가 쓰는 가면이란 뜻으로, 멀티 페르소나 소비란 소비자가 상황에 따라 다중 정체성을 보이는 소비행태를 의미한다. 소비자들이 다중 정체성을 추구하면서 고가품과 저가품 중심으로 제품 소비가 양극화되는 소비 패턴 변화가 예상된다. 자기보상적 소비, 가족 중심형 소비, 앵겔지수 제품의 소비 저가격 지향성, 브랜드 지향성이 소비패턴의 주요 특징이 될 것이다. 특히 자산디플레로 저가제품 구매, 상설매장 이용, 기존제품의 재활용 등 저가격 구매행동과 카드 포인트 및 할인쿠폰 이용 등 비용절감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2009년에 예상되는 해외 10대 트렌드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는 한편, 기회요인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내경제와 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정책과 경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정책적 시사점)

우선 정부는 **첫째, 녹색경제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해 민간과 함께 녹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며 제품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저 탄소 공정을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신 케인지안 시대를 맞아 국가가 주도해서 위기 이후 시대 (post-crisis era)를 대비해 신성장 분야의 육성과 연계된 경기부양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며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한국경제에 주는 차이나 효과 (China Effect)를 극대화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SOC 건설에 대한 중국의 재정지출 확대는 국내 건설업 건설장비 등 연관 산업에는 기회요인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식량위기의 재연 가능성에 대비해서 해외식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하며 제 2세대 바이오 연료를 개발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기업의 대응방안)

기업들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전략수립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오바마노믹스의 공정무역정책에 대비해 미국시장의 비중이 높은 수출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를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역조 해소를 위한 통상압력 강화를 우회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미국과 유럽 금융회사들이 자체 부실 문제에 집중하면서 신흥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 금융회사들은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셋째,** 역동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인프라 개발수요가 큰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마이너마켓의 부상에 대응해서 기업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동경제가 재정 곤란에 빠질 경우, 이 지역에 진출한 건설, 플랜트 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다중정체성을 보이는 멀티페르소나 소비 패턴의 등장에 대응해서 기업들은 제품, 가격, 촉진, 유통 전략의 수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009년 해외 10대 트렌드

## 개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해외 정치, 경제, 산업, 경영분야의 새로운 양상을 국내외 문헌을 토대로 분석하여 2009년에 예상되는 해외 10대 트렌드를 선정

## 2009년 해외 10대 트렌드

<b>단극체제에서 무극체제로의 국제질서 전환</b>	- 세계 경제는 미국 위주의 단극체제에서 수많은 국가 및 기관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 무극화 체제로 진전되고 있음
<b>오바마노믹스 : Free Trade에서 Fair Trade로</b>	- 오바마는 선거기간 동안 "Fair trade"를 강조하였고, 연방의회도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이를 지지하는 색채가 강해지고 있음
<b>케인즈 시대로의 회귀</b>	- 시장기능의 무절제한 팽창에 따른 금융위기 발발로 정부기능 확대를 주장하는 케인즈의 경제학이 다시 주목 받고 있음
<b>중국 쾌(快), 중(重), 준(准), 실(實) 지침의 정착</b>	- 중국 정부는 11월 초 당면한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발표한 「내수확대 10대조치」의 실행지침을 「쾌중준실(快重准實)로 설정
<b>이슬람경제의 성장정체</b>	-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중동국가들의 석유 판매 수입 감소가 이들 국가들의 부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됨
<b>마이너 마켓의 부각</b>	- 2009년은 선진국 경기는 물론 신흥공업국의 경기가 동반 침체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던 마이너 마켓이 부각
<b>녹색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b>	- 선진국들은 탄소배출권,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경제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음
<b>식량위기 가능성의 대두</b>	- 세계 인구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식량 위기의 가능성이 상존
<b>디리버리지 시대로 복귀</b>	-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붕괴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1세기 금융산업의 모델이었던 투자은행시대가 막을 내림
<b>멀티페르소나 소비의 등장</b>	- 소비자들이 다중 정체성을 추구하면서 고가품과 저가품 중심으로 제품 소비가 양극화되는 소비패턴 변화가 예상됨

## 정부정책과제와 기업의 대응방안

정부 정책과제	기업의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경제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의 녹색화를 추진</li> <li>- 국가가 주도해서 신 성장 분야의 육성과 연계된 경기부양책을 신속하게 집행</li> <li>-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한국경제에 주는 차이나 효과(China Effect)를 극대화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li> <li>- 식량위기의 재연 가능성에 대비해서 해외식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하며 제 2세대 바이오 연료를 개발하는 데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시장의 비중이 높은 수출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증대</li> <li>- 미국과 유럽 금융회사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우리 금융회사들은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함</li> <li>-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마이너마켓의 부상에 대응해서 기업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li>- 중동경제가 재정 곤란에 빠질 경우, 이 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피해를 줄일 대응 전략 마련</li> <li>- 다중정체성을 보이는 멀티페르소나 소비 패턴의 등장에 대응해서 기업 전략의 수정을 추진</li> </ul>

## 1. 개요

○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해외 정치, 경제, 산업, 경영 분야의 새로운 양상을 국내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2009년 각 부문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트렌드를 선정함

- 2009년 해외 정치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는 미국 위주의 단극 체제에서 무극화 체제로의 국제질서 전환임
- 경제 부문에서는 오바마의 집권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이 자유무역에서 공정무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케인즈 시대로의 회귀, 쾌·중·준·실 원칙에 입각한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 이슬람경제의 성장정체, 마이너 마켓의 부각을 들 수 있음
- 산업부문에서는 녹색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식량위기의 대두를 주요 트렌드로 선정하였음
- 경영부문에서는 디레버리지 시대의 복귀 (투자은행 시대의 몰락)와 멀티 페르소나 소비의 등장이 주요 트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 2009년 해외 10대 트렌드

### ① 단극체제에서 무극체제로의 국제 질서 전환

○ (개념) 세계 경제는 미국 위주의 단극체제로 한동안 유지되었으나, 최근 일련의 정치 및 경제 사안에서 단일 국가 중심의 해법의 한계로 인해 수 많은 국가 및 기관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 무극화 체제로 진전되고 있음

- 다극에서 무극으로 진화 : 국제질서는 20세기 초의 다극화시대에서, 미국과 소련의 양극화, 미국 위주의 단극화를 거쳐 무극화 체제로 접어들<sup>1)</sup>

· 다극체제(multipolar system) : 20세기 초 영국의 쇠퇴와 함께 미국, 소련, 유럽의 부상으로 세계는 다극화 체제를 맞이함

· 양극체제(bipolar system) :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으로 대별되는 양국 위주의 국제 질서가 형성됨

· 단극체제(unipolar system) : 냉전이후 미국 위주의 단극체제가 이루어짐

· 무극체제(nonpolar system) : G7 등 주요국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세력, 비정부기관(NGO), 기업 등도 의미 있는 힘을 가지고 체제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다극화와는 다른 무극체제라 볼 수 있음

- 세계경제 위기의 동조로 인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요구 증대 : 세계 경제의 통합 정도가 강화되면서 경제위기 발생 시 파급효과가 한 나라에 그치지 않고 주변국이나 전 세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이러한 경제위기 동조 현상은 1990년대 중반 멕시코 경제위기 때부터 현실화되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심화되었음

· 특히,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되는 가운데, 실물 부문의 침체도 전 세계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현 경제위기를 개별 국가나 지역 단위에서의 대응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됨

1) Richard N. Haass, "The age of nonpolarity: What will follow U.S. dominance?", Foreign Affairs, May/June, 2008

- 따라서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 혹은 국제 경제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됨
  
- (진행 추이) G20회의를 통한 국제질서의 개편 가능성을 보인 가운데, 미국 중심의 체제의 수정의 필요성은 증가하였으나, 새로운 질서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함
  
- G-20회의의 의의 : 주요 선진국들과 신흥개도국까지 포함됨 G-20 정상회의가 지난 11월 15일에 열림
  - 선진국의 비중 감소 : 현 경제위기에 대한 선진국들만의 정책 공조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확대되고 있어,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 신흥국의 비중 증대 :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들 국가들에 대한 발언권이 확대되는 방안을 도모
  - 달러 비중 감소 : 달러화 이외의 유로화와 같은 대체통화를 국제통화로 사용하거나 바스켓 통화제도를 도입
  
- 금융시장 규제 : 미국과 영국은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와 중국은 새로운 질서 확립을 요구
  - 미국 : 기존의 금융질서 안에서 시장의 투명성 확대 및 국제금융통제기구의 감시·감독의 강화를 강조
  - 영국 : 미국의 입장에 가까운 입장
  - 프랑스 :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구축
  - 중국 : 2008년 10월 28일 러시아-중국 포럼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간 교역에서 미국 달러화 대신 위안과 루블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같이함
  
- 경제 의존도 분산 :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경제 의존도가 분산되고 있음

-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비중 축소로 EU와 일본 등 선진지역과 중국, 아시아 등을 포함한 신흥개도국들의 역할이 강조됨
- **GDP 비중** :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은 2001년 32.0%에서 2007년에는 25.3%로 낮아진 반면, 유럽은 19.9%에서 22.3%로 증가, 중국은 4.2%에서 6.0%로 증가하여 경제 의존도가 분산되고 있음

**<주요국의 세계 GDP 대비 비중추이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세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유럽	19.9	20.9	22.9	23.3	22.4	21.9	22.3
중국	4.2	4.4	4.4	4.6	5.0	5.5	6.0
일본	12.9	11.9	11.4	11.1	10.1	9.0	8.0
미국	32.0	31.8	29.6	28.0	27.6	27.1	25.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8.

- **(향후 전망)** 새로운 국제경제기구의 확립은 당분간 어렵지만, 국제경제기구의 감독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비중 약화의 중국의 잠재력이 발휘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리더십 약화** :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장기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까운 장래에 미국을 대체할 세력은 당분간 나타날 가능성이 낮지만, 미국의 리더십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임
  - 미국은 글로벌 수준에서의 규제기구 강화에 미온적이며, 대내적인 규제도 민간부문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부상** :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을 고려할 때 미국을 대신할 패권국가로서의 파워는 지니지 못했지만 풍부한 잠재력을 가짐
  -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1조 9,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큼

② 오바마노믹스: Free Trade에서 Fair Trade로

○ (현상) 제44대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는 선거기간 동안 “Fair trade”를 강조하였고, 연방의회도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이를 지지하는 색채가 강해짐

- 오바마는 선거기간 내내 공약으로 “Fight for Fair Trade” 곧, 공정한 무역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
  - 지금까지 세계화는 일자리와 미국의 경제적 안전에 부정적이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의 비용과 이득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sup>2)</sup>
- 이번 선거를 통해 “Fair trade”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연방의원들의 수가 상원에서 3명 그리고 하원에서 27명 등 총 32명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sup>3)</sup>

○ (특징) 미국의 통상정책은 무역수지상의 불균형에 대한 시정이 강조되고,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정부보다는 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임

- 오바마는 무역수지상의 지나친 불균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내비침<sup>4)</sup>
  - 특별히 2007년 한국이 미국에 70만대를 수출하였지만 미국은 한국에 4,556대를 판매하는데 그쳐 한국과의 자동차 무역에 있어서 1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여러 차례 주장

2) “Fighting for fair trade and good jobs for American workers,” Obama'08 (<http://barackobama.com>).

3) 『Election 2008: Fair Trade Gets an Upgrade』, Public Citizen, Nov 5, 2008.

4) “Fighting for fair trade and good jobs for American workers,” Obama'08 (<http://barackobama.com>).

- WTO로 하여금 각국이 자유무역정신을 준수하고 수출업자들을 위한 정부보조를 중지하며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힘
-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쌍무적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바람직한 노동과 환경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sup>5)</sup>
  - 오바마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CAFTA(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를 반대하였고 NAFTA를 지지하지 않음
  -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인정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당사국들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환경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CAFTA 그리고 다른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는 미 연방의회는 미국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
  - 2007년 의회는 무역협정에 있어 대통령에게 전적인 협상권을 주고 의회는 최종적으로 승인여부만을 결정하던 “fast track”에 대한 연장을 거부<sup>6)</sup>
  - 오바마는 “fast track”을 노동, 환경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확대되는 새로운 절차로 대체하고 대외 경제정책과 앞으로의 무역협상에 있어 의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sup>7)</sup>

5) 『Election 2008: Fair Trade Gets an Upgrade』, Public Citizen, Nov 5, 2008.

6) “Obama to usher in major shift in trade policy,” AP, Nov 19, 2008.

7) 『Election 2008: Fair Trade Gets an Upgrade』, Public Citizen, Nov 5, 2008.

③ 케인즈 시대로의 회귀

○ (케인즈 경제학의 부활) 시장기능의 무절제한 팽창에 따른 금융위기 발발로 정부기능 확대를 주장하는 케인즈의 경제학이 다시 주목 받게 됨

- 시장 기능을 제약하는 대신 정부의 규제 강화 및 재정 확대를 통한 유효 수요 창출을 주장한 케인즈의 이론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함

-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련의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법을 도입하고 고속도로 건설, 하천 정비 등 SOC 투자 확대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위 '뉴딜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유명함
- 금융위기에서 발발된 당면한 경제위기 국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 케인즈 시대로의 회귀 가능성이 큼

○ (세계적 경기부양 러시) 세계경제 침체가 심화되면서 각국 정부는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재정지출확대와 감세 등 경기부양책을 경쟁적으로 실시함

- 국제형세 :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신흥경제국들도 경기부양책을 앞 다퉈 발표함

- 미국은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안을 마련하고 페니매와 프레디맥 및 9개 은행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하였으며, 자동차 '빅3'에 대한 자금지원을 결정함
- 독일은 코메르츠뱅크에 82억 유로의 공적자금과 150억 유로의 채무 보증을 제공, 영국은 TSB와 HBOS에 170억 파운드의 공적자금 투입 예정이며 프랑스는 최근 200억 유로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 중국은 2010년까지 2년 동안 내수확대를 위해 총 4조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며, 러시아는 2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 **국내형세** : 정부는 건설경기와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대대적인 감세 조치를 실시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민영화시기를 지연하고 있음
  - 정부는 2009년 예산에서 재정지출 확대와 추경예산 편성, 감세 등을 통해 총 33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을 시도함
  - 지방 건설투자에 4조 6,000억원,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농어업인에 3조 4,000억 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사업에 1조원을 지원할 예정
  - 18개 국내 은행의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외화차입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확대가 가시화됨
  -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대형 공기업의 상장을 통한 민영화를 지연시키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의 지분 매각시점도 조정하고 있음

○ (전망) 위기 극복을 위해 제시된 각국 경기부양책의 실시로 인해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질 가능성이 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임

- 각국 정부의 신속하고 대대적인 경기부양과 국제공조를 통한 위기 대응 조치로 인해 금번 경제위기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극복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재생 에너지, 친환경 등으로 대표되는 '녹색성장시대'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각국 정부의 재원 조달 난(難)과 경제주체들의 모럴헤저드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임

④ 중국 쾌(快)·중(重)·준(准)·실(實) 지침의 정착

○ (개념) 중국 정부는 11월 초 당면한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발표한 「내수확대 10대조치」의 실행지침을 「쾌중준실(快重准實)」로 설정

- 쾌(快) :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강조함으로써 타이밍 포착을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설정함
- 중(重) : 경기(景氣)의 급속한 하강 국면을 효과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함
- 준(准) : 경기부양의 핵심 고리를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공략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요구함
- 실(實) : 쾌, 중, 준 3대 지침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실행의 전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것을 지시함

○ (트렌드) 중국은 「쾌중준실(快重准實)」을 지침으로 「내수확대 10대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김으로써 경기 급락을 방지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8%의 경제성장률을 사수하고 내수 확대를 통해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형적인 성장 방식을 개선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2010년까지 2년 동안 내수확대를 위해 총 4조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 견인 효과는 매년 1.2~1.8%p가 될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의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주로 민생 관련 프로젝트와 진행 중에 있는 대형 SOC 투자 및 산업구조 고도화 기반 마련에 집중됨

- 민생 관련 투자 확대 : 중국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며, 유목민의 정착시설에도 투자를 확대할 방침임
- SOC 확충 : 농촌과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핵심으로 낙후 지역의 의료, 문화 인프라와 도시의 상·하수도 시설 및 지진 피해지역 복구에 투자를 확대함
- 산업구조 고도화 기반 마련 : 하이테크 산업의 R&D 활동과 서비스업의 확장을 지원하고 부가가치세법을 개편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함

<중국 국무원 내수 진작을 위한 10대 조치>

	10대 조치	주요내용
1	주민 주거환경 개선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유목민 정착 시설 투자 확대
2	농촌 인프라투자 확대	- 농촌지역 수도, 전기, 도로 등 인프라 투자 확대
3	교통인프라 확충	- 철도, 도로, 공항 등 교통인프라에 집중 투자
4	의료, 문화 인프라 확충	- 중서부 내륙 지역의 의료, 문화 인프라 확충
5	생태환경 보호체계 구축	- 도시 상하수도 시설 구축, 천연림 보호 프로젝트 추진
6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 하이테크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육성
7	지진 피해지역 복구	- 사천성 지진 피해지역 복구 사업 적극 추진
8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	- 농지 경작권 매매 자유화 실시, 양곡 수매가 인상
9	부가가치세법 개편	- 부가가치세 산정을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개편
10	대출규제 완화	- 농촌, 중소기업,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영향) 중국의 경기부양책 실시가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경우, 이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중국 경제의 위상이 한층 제고 될 것임
- 중국경제의 8% 성장률 유지는 세계경제 동반침체 속에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이며, 중국경제의 위상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는 對 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급격한 수출 둔화로 인한 경기 급랭의 부작용을 완충시켜 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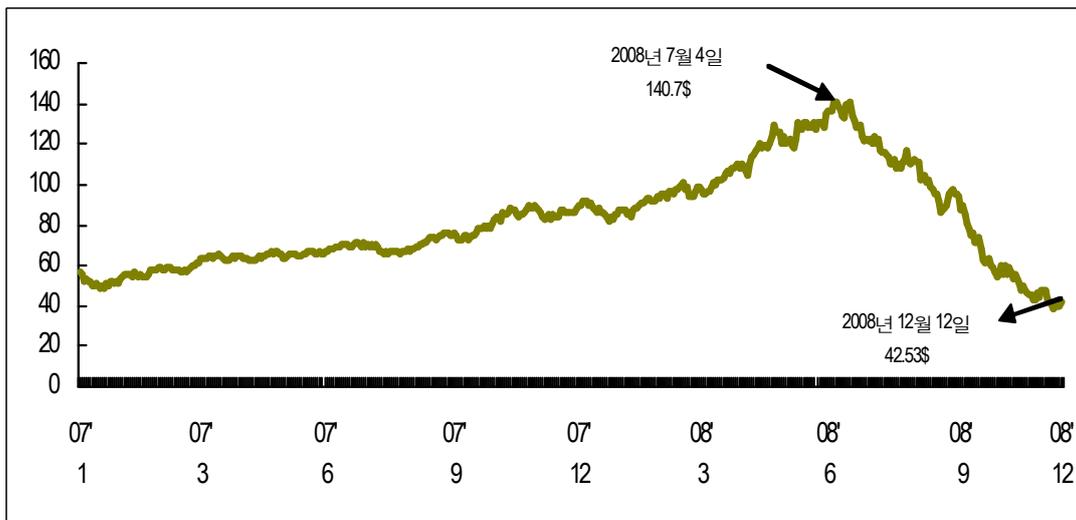
⑤ 이슬람경제의 성장 정체

○ (현상) 오일달러를 기반으로 제2의 부흥을 노리던 중동경제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난관을 맞음

- 하락하는 국제 유가 : 지난 2008년 7월 4일 배럴 당 140.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두바이 유가가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난 12월 12일에는 배럴 당 42.5\$로 69.8%나 급락
- 비틀거리는 중동경제 : 최근 유가 하락과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로 중동 지역 석유·가스 개발이 지연되고,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중단 위기에 처함
  - 사우디아라비아의 Saudi Aramco사는 Manifa 중질유, Karan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의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Jubail과 Yanbu의 정제시설 프로젝트 입찰 마감일을 2009년으로 연기함
  - 세계 최대 석유화학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의 SABIC이 플라스틱부문 직원 1,000여 명을 감축할 계획임

<두바이 유가추이>

(단위 : \$/b)



자료 : 한국석유공사.

- (전망) 세계 경기 동반 침체에 따르는 세계 석유 수요가 감소로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는 한편, 오일달러 의존도가 높은 중동국가들의 석유 판매 수입 감소가 이들 국가들의 부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
  - 석유 수요 감소 : IEA와 EIA는 2009년 세계 석유 수요가 월평균 각각 8,650만 배럴, 8,590만 배럴로 2008년에 비해 각각 0.4%, 1%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제 유가 하락 전망 : CERA(미국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는 두바이 유가를 2008년 배럴 당 평균 99.6달러에서 2009년에는 76달러로 23.7% 하락 전망
  - 제2의 부흥 좌초 위기 : 2009년에는 석유 수요 감소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중동 국가들의 석유 판매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국가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2의 부흥이 좌초될 가능성도 존재
    - 2007년 배럴 당 평균 68.3달러였던 두바이 유가가 2008년 12월 12일 현재 96.8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 수입액 또한 급상승하였음
    - 하지만 2009년에 다시 두바이 유가가 하락할 경우, 중동 국가들의 석유 판매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산유국들의 균형재정에 이르는 유가가 70달러로 볼 때 제2의 부흥을 꿈꾸는 중동경제가 큰 난관에 봉착할 것임

<주요 중동국가들의 석유 판매 수입액>

구분	2007년	2008년
사우디아라비아	2,015억 달러	3,297억 달러
이 란	643억 달러	1,015억 달러
쿠 웨 이 트	531억 달러	763억 달러
U A E	659억 달러	1,043억 달러
카 타 르	245억 달러	445억 달러

자료: Weekly Petroleum Argus, Sep. 1., 2008; 한국석유공사 '주간석유뉴스'에서 재인용

⑥ 마이너 마켓 (Minor Market)의 부각

○ (배경) 2009년은 미국, EU 등 선진국 경기는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경기가 동반 침체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던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마이너 마켓이 부각

- IMF는 지난 11월에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를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 주요 지역, 국가들에 대한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수정 발표
  - 2009년 세계 전체 경제성장률을 10월 3.0%에서 11월에 2.2%로 낮춤
  - 특히, 미국, EU,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0.1%, 0.2%, 0.5%에서 -0.7%, -0.5%, -0.2%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뜨림
  - 세계 3대 주요국 경제성장률이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 있는 현상으로 선진국 시장의 매력에 대폭 감소하고 있음

- 선진국 시장의 소비 침체로 인해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로 성장하던 중국, 인도, 러시아 등도 저성장 국면에 진입
  - IMF 11월 수정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9.3%에서 8.5%로 하향 조정되었고, 분기별로는 2~3%의 초 저성장 가능성도 큼
  - 2008년 대비 2009년 경제성장률은 러시아가 6.8%에서 3.5%로, 인도가 7.8%에서 6.3% 하락할 전망

○ (개념)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저개발, 미개발 국가들은 세계경기 하락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경기위축이 덜 하여 금번 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임

-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지역은 2008년 대비 2009년 경제 성장 하락폭이 크지 않고, 일부 국가는 정치 불안 해소로 고도성장이 예상
  - 2009년에는 지금까지 정치불안과 미 성숙된 소비시장으로 국내 기업들의 공략시장에서 소외되던 마이너 마켓들의 상대적 부상이 기대됨

- 특히, 콩고 10.3%, 앙골라 12.8%, 투르크메니스탄 10.3%, 몽고, 8.1%, 수단 7.7% 등 정치적 불안이 해소되는 국가를 중심으로는 고도성장이 예상된다
-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에 이어 마이너 마켓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 **교역분야** : 2008. 1~9월 중 대중남미 무역흑자가 149억불로 우리의 최대 무역 흑자 시장으로 부상하는 등 교역 중요성 증대
  - **건설분야** : 2008. 1~10월 중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는 각각 1위, 3위, 4위의 해외건설 수주지역으로 급부상 (2위는 아시아)
  - **자원개발** : 유전개발 분야와 자원개발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 전략적 요충지임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구분	합계	중동	아시아	태평양·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08.1~10	43,528	26,253	11,902	535	1,080	1,287	2,469
2007	39,788	22,800	12,854	675	1,436	1,687	333

자료: 해외건설협회.

- (영향) 선진국과 개도국 위주의 주력시장 침체로 신흥시장 개척이 절실한 국내외 기업들에게 마이너 마켓은 매력적인 돌파구가 될 것임
- 선박, 승용차, 평판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역내 인프라 개발, 자원 개발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발주도 연이을 전망이다

⑦ 녹색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주요국의 녹색성장 추진 동향) 최근까지 유럽과 일본이 탄소배출권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선도시장에서 앞서 나아가고 있음

- (유럽)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 할당 방식(Top-Down)으로 저탄소 환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녹색산업을 위한 정책으로 선도시장에서의 선구자적인 이익을 추구

- 환경 규제 확보를 통한 EU권내 환경산업의 선제적 경쟁력 확보와 국제 사회에서 기술 및 규제의 표준을 설정하는 선도자적 입장을 고수하려 함
- 2008년 1월 '기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종합정책'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도의 확장과 회원국의 의무할당제 재구성 뿐만아니라 혼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20-20-20 계획을 발표

- (일본) 새로운 경제 성장 활력에 대한 대안으로 '저탄소사회'라는 비전을 통한 신성장산업 발굴과 전통적인 에너지 강국으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을 추진

- 아시아지역의 광역적 환경대책을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과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배출국들이 참여하는 체제 구축에 노력
- 2008년 후쿠다 총리는 절약형 전구 전화, 에너지절약형 주택 의무화 등 에너지 관련 정책 뿐만아니라 미국, 영국과 함께 기후변화대책을 위한 개도국 지원을 약속

- (미국) 오바마 차기 대통령은 Green New Deal정책을 발표하여 녹색성장 관련 미국의 정책적 급선회의 가능성이 고조

- 오바마정권은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녹색관련 SOC투자, 기존 제조업의 보호와 산업 전환을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00만 명의 'Green Color'를 창출하려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

- (세계의 녹색산업) 美국제환경비지니스의 추계에 따르면 환경비지니스 시장은 1996년 4,741억 달러에서 2006년 6,920억 달러로 1.5배 확대되었으며 점진적인 확장 추세에 있음
- (풍력산업)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연평균 2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의 녹색산업으로 평가
  - 경제성과 기술의 성숙도가 빨라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5%의 성장이 예상되고 발전용량도 2007년 94GW에서 2020년 576GW로 6배 이상 성장이 예상됨
- (태양광 관련 산업) EPIA는 세계 태양광발전 시스템 규모는 2007년 2.8 GW, 2010년 6GW, 2030년에는 280GW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함
  - 또한 태양전지 시장은 2018년에는 1,87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함
- (그린카 산업) 2007년 생산된 자동차 7,300만대 중에서 하이브리드차는 0.55%인 40만대에 불과하지만 세계 각 기업들은 클린 디젤차, 하이브리드차, 프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의 그린카를 개발중에 있음
  - 특히 토요타 자동차는 2006년 전세계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 40만대 중 80% 이상인 31만대를 판매하여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함
-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국내고효율 및 친환경의 고부가가치의 조명산업으로 반도체와 IT기술이 접목되어 2007년 전세계 시장 규모는 140억 달러에 이름
  - 이러한 LED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여 2015년에는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⑧ 식량위기 가능성의 대두

○ 세계 인구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식량 위기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2008년 현재 67억 명에서 2050년에는 91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국제연합 인구기금은 전망
  - 세계 인구는 20세기 초 약 15억 명에서 이후 100년 동안 52억 명이 증가해 현재 약 67억 명에 이르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연간 8,200만 명 증가한 것을 정점으로 증가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나 세계 인구 증가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
  - 2050년까지 인구 증가 약 24억 명 증가한 91억 명으로 예측됨
- 주요 곡물의 가격 변화 추이를 보면 2006년 대비 2008년 1/4분기 말 70~80%까지 급등
  -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2008년 11월말 전년대비 밀, 옥수수, 대두의 가격은 하락

<주요 곡물가격 변화추이>

	2006말	2007말	2008 1/4말	2008 2/4말	2008 3/4말	2008 11월말
밀(센트/부셸)	501	885	929	844	680	543
옥수수(센트/부셸)	309	456	567	725	488	350
대두(센트/부셸)	697	1,214	1,197	1,605	1,045	883

자료: 기획재정부.

○ (원인) 식료품 가격 급등은 에탄올 증산을 위한 옥수수 수요 증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경제 발전에 의한 식품 수요 확대 등에 기인함

- 에너지 원료 수요 증대 : 바이오 에탄올 원료를 위한 옥수수 이용 급증에

의한 사료 곡물의 부족

-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에탄올 생산촉진정책에 의해 최근 옥수수 생산이 크게 확대되고 농지를 보리와 같은 곡물 재배에서 옥수수 재배로 전용한 농가가 속출함에 따라 곡물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됨

- **신흥개발국 발전** : 중국, 인도를 선두로 하는 등의 현저한 경제발전에 따라 식육소비의 증대와 사료곡물 수요가 증가함

○ (전망) 신흥국 중심의 수출 규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식량 산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바이오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 산업이 개발될 것임

- **신흥국 중심의 수출 규제** : 식량 부족을 우려하는 일부 나라들에서는 수출 규제의 움직임이 보임

- 2008년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 인도, 러시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브라질 등의 신흥국과 발전도상국이 중심 되어 수출을 규제함

- **식량 산업 발전 가능성** : 향후에도 신흥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요 확대라는 구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과 식량, 식품 가공과 유통 등 관련 산업이 향후 유망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음

- 식량 공급 확대와 관련된 업종과 기업은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가격과 수요 지속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될 것임

- **제 2세대의 바이오 연료 개발이 필요** : 바이오 연료 때문에 세계의 안전보장이 위협받지 않도록 식량 작물이 아닌 간벌재, 짚 등의 제 2세대 바이오 연료의 연구와 실용화가 요구됨

⑨ 디레버리지 시대로 복귀 (투자은행 시대의 몰락)

○ (현상)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붕괴에서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1세기 금융산업의 모델이었던 투자은행(Investment Bank) 시대가 막을 내림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초대형 투자은행들이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통합
  - 2008년 3월 미국 5위의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Bear Sterns)가 JP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에 매각
  - 9월 15일 3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Merrill Lynch)가 बैं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에 인수되었고,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파산보호를 신청
  - 9월 21일에는 1위와 2위인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와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상업은행 기능을 담당

○ (원인) 과도한 레버리지(차입투자)와 첨단 금융공학으로 탄생시킨 파생상품에 대한 맹신, '고위험-고수익' 투자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대형투자은행의 파산 원인은 투자은행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존재하였기 때문임
  - 전통적으로 투자은행은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기업과 해당 유가증권을 매국하는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거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본시장 내의 자금흐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고유자산 트레이딩,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 등의 업무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수료 수익보다는 고유계정에서의 이익창출 비중이 높아짐
  - 이에 따라 미국 상위 5개 투자은행의 부채는 2000년대 초반 자기자본의 20배 수준에서 2007년에는 30배까지 확대

- 하지만 예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상업은행과는 달리 차입에 크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유동성 낮은 서브프라임 관련 자산들의 가치가 하락하자 급속한 자금회수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

○ (변화 방향) 미국의 대형투자은행의 몰락으로 향후 국제금융시장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

- (건전성 규제 강화)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신용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 모색이 예상
  - 금융감독체계 개선, 파생금융상품 관련 제도의 보완, 신용평가회사의 개혁, 회계 및 공시제도의 강화 등 금융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예상
  - 특히,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는 CDS 등 부외거래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규제 강화가 예상
  - 또한 신용파생거래의 장내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고, 계약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임
- (디레버리지) 리버리지 규제로 고유계정을 통한 수익 창출 구조가 축소되어 투자은행은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가장 전통적인 의미의 투자은행 모델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
  - 파생금융상품과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리버리지 거래는 더욱 축소되며 상당기간 디레버리지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⑩ 멀티페르소나(Multi-persona) 소비의 등장

○ (개념) '페르소나(persona)'란 연극배우가 쓰는 가면이란 뜻으로, '멀티 페르소나 소비'란 소비자가 상황에 따라 다중 정체성을 보이는 소비행태를 의미함

- 소비자들이 다중 정체성을 추구하면서 고가품과 저가품 중심으로 제품 소비가 양극화되는 소비패턴 변화가 예상됨
  - 경제침체로 인한 위기감 고조로 욕구, 주체, 종류, 가격, 준거기준 등 과거와는 다른 다중 정체성을 추구하는 소비패턴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예를 들어 경기 침체로 구매력이 감소한 소비자들이 기존의 고가품에서 저저가격 지향의 제품 소비로 구매행태가 변함
  -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자기보상 심리로 과감하게 명품을 구매하는 한편, 자기중심적 소비패턴에서 가족중심적인 제품 선호 현상이 강해질 것임
  - 결국, 전체 시장 관점에서는 중가품의 소비보다는 고가품의 명품과 저가품 중심의 제품 소비가 양극화되는 소비패턴의 변화가 예상됨

○ (트렌드) 자기보상적 소비, 가족 중심형 소비, 앵겔지수 제품의 소비, 저가격 지향성, 브랜드 지향성이 강해질 것으로 보임

- (욕구) 심리적 안정감 추구를 위한 “자기보상”적 소비욕구가 강해질 것임
  - 평상시 보다 낮은 소비지출 등 소비패턴 변화의 보상심리 때문에 자신을 위로하고 ‘상’을 주는 소비행태가 종종 나타나게 됨
  - 주류, 의류, 화장품 등에서 기존에 자신이 선호하던 것보다 더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상품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될 것임
- (주체) 위기감 공유로 기존의 ‘자기 중심형’ 소비보다는 ‘가족 중심형’ 소비로의 변화가 확대될 것임
  - 자기 정체성 표현을 위한 의류, 액세서리, 문화생활 등이 불황으로 인한

- 구매력 감소로 인해 위축하는 대신,
- 가족이 위기극복을 위한 원천으로 부각되면서 외식, 스포츠, 금융 등에서 가족형 제품과 명절 등에서의 가족 선물 소비가 증가할 것임
- **(제품)** 내구제·사치제 소비 대신 “엔겔지수” 제품의 소비가 증가할 것임
    - 충동구매 등 비계획 구매나 쇼핑의 즐거움을 추구했던 소비패턴이 불황기로 인한 위기감으로 꼭 필요한 제품만 구매하는 소비 형태로 변화할 것임
    - 가구, 자동차 등 거액의 비용이 동반되는 내구제와 사치제의 제품소비는 감소하는 한편, 식품·의약품 등 필수품 위주의 소비패턴이 정착될 것임
  - **(가격)** 자산감소로 제품가격의 민감도가 강해져 “저가격 지향성”이 강화됨
    -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 및 기업의 실적악화,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침체로 인한 자산 감소효과로 제품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강해질 것임
    - 저가제품 구매, 상설매장 이용, 기존제품의 재활용 등 저가격 구매행동과 카드 포인트 및 할인쿠폰 이용 등 비용절감 경향이 증가할 것임
  - **(준거기준)** 제품구매에 따른 리스크방지를 위해 “브랜드 지향성”이 강해짐
    - 불황기때 소비자들은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위험을 많이 느껴 저가제품에서도 PB(유통업체 부착방식 브랜드) 등 브랜드선호가 강해질 것임
    - 충동구매 보다는 ‘좋은 것을 사서 오래 사용 하겠다’라는 등 합리성에 기반한 계획구매 성향 때문에 브랜드 지향 소비패턴은 불황기에도 유지될 것임

###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 2009년 예상되는 해외 10대 트렌드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위협 요인이자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위협요인 : 자유무역에서 공정무역으로의 미국 통상정책 전환, 중동경제의 침체, 식량위기 가능성의 대두가 한국경제와 기업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기회요인 :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 마이너 마켓의 부각, 녹색경제문화의 정착, 멀티페르소나 소비의 등장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2009년 예상되는 해외 10대 트렌드에 대응하여 정부와 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한편,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야 할 것임

#### 1) 정책적 시사점

- 정부는 녹색경제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에 노력해야 함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해 민간과 함께 녹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함
    - 녹색상품의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시장 창출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및 녹색산업의 R&D 기술 지원에 매진해야 함
  - 제품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저 탄소 공정을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세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 사용구조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
  - 기업들이 사업·인력·기술·관리 측면 모두에서 친환경 모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신 케인지안 시대를 맞아 국가가 주도해서 위기 이후 시대(post-crisis era)를 대비해 신성장 분야의 육성과 연계된 경기부양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며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함

- 신성장 분야에 투자 집중 : 위기 이후 시대에 다가 올 '지식기반 사회'와 '녹색성장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SOC와 신산업 분야에 투자를 집중해야 함

- 타이밍과 강도 조절 :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기부양책을 신속하고 강도 높게 집행해야 함

- 부작용 최소화 방안 모색 : 재정적자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한국경제에 주는 차이나 효과(China Effect)를 극대화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SOC 건설에 대한 중국의 재정지출 확대는 국내 건설업, 건설장비, 건설자재 등 연관 산업에는 기회요인이라고 판단됨

· 정부간 SOC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새마을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농촌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 SOC 프로젝트 참여 시 행정적 지원과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식량위기의 재연 가능성에 대비해서 해외식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하며 제 2세대 바이오 연료를 개발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 기업의 대응방안

○ 오바마노믹스의 공정무역정책에 대응해서 미국시장의 비중이 높은 수출 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를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역조 해소를 위한 통상 압력 강화를 우회할 수 있음
  - 우리기업들은 미국에 2008년 들어와 11월까지 전체 수출의 약 10%인 394억 달러어치를 수출하여 6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
  
- 미국과 유럽 금융회사들이 자체 부실 문제에 집중하면서 신흥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 금융회사들은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향후 금융투자회사는 국내금융투자회사와 해외 대형 투자은행의 중간적인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즉 해외 투자은행들은 고유계정의 규모를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지나치게 단순 중계업무에만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고유계정의 규모를 현재보다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투자은행이 간판을 내렸지만 JP모건이 베어스턴스를 인수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메릴린치를 합병한 것은 IB의 가치와 상품성을 인정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음
  
- 역동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인프라 개발수요가 큰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마이너마켓의 부상에 대응해서 기업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무역 상품의 구성에 있어 한국의 강점은 강조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교역 부가가치가 매우 큰 지역으로 교역 확대가 필요
  - 이들 지역으로의 주요 수출품은 선박, 승용차, 평판 디스크플레이이고, 주요 수입품은 동광, 동제품, 철광석 등으로 보완관계가 가능
  
- 역동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인프라 개발수요 등 경제적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경제협력과 진출 강화가 필요
  - 역내 인프라 개발, 자원개발 등은 물론이고, 소비시장도 성장세에 있어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필요

- 중동경제가 재정 곤란에 빠질 경우, 이 지역에 진출한 건설, 플랜트 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함
  - 단, 세계적 경기 침체 시 이들 지역에 대한 패키지 자원 외교를 통한 자원 개발 및 관련 산업 진출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며, 소비 시장에 대한 진출 강화를 통해 수출 패턴의 다양화를 꾀해야 할 것임
- 경기침체에 따라 다중정체성을 보이는 멀티페르소나 소비 패턴의 등장에 대응해서 기업들은 제품, 가격, 촉진, 유통 전략의 수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 필수기능 중심의 제품개발을 통한 저가격 제품 출시와 비교 광고 등 제품 정보 중심의 촉진전략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 매출액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부가기능의 과감한 제거(예: 휴대폰의 MP3 제거)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기존의 감성중심에서 경쟁사 대비 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인터넷 등 매체와 광고 등 정보중심 촉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유통업)** 대형할인점, 오픈 마켓, 슈퍼마켓 등은 유통업체들은 각 유통업의 강점을 중심으로 한 대응전략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들이 저가격 제품과 브랜드 선호도가 증가하는 만큼 대형할인점은 묶음판매와 PB제품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 인터넷 오픈 마켓은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가격과 브랜드 지향의 제품구색에, 슈퍼마켓은 소량판매를 위한 제품구색 확대에 집중해야 할 것임

산업전략본부, 경제연구본부 (3669-4334, swan@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하반기 실질임금 환란 이후 최악

- 한국은행과 노동부에 따르면 하반기 실질임금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요인과 명목임금의 하락으로 3/4분기 -2.9%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
  - 실질임금 증가율은 2008년 1/4분기 2.3%, 2/4분기 1.6%에서 3/4분기는 명목 임금 증가율(2.6%)과 물가 증가율(5.5%)로 인해 -2.9%를 기록하며 감소세가 두드러짐
  - 또한 실질임금과 취업자 수의 곱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총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구매력도 1999년 1/4분기 -1.3% 이후 2008년 3/4분기 -1.8%를 기록함으로써 환란 이후 최악의 구매력 상황을 보여줌
  - 이는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로 명목임금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률도 크게 낮아 지지 않을 전망이어서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3/4	4/4	1/4	2/4	3/4	10월	11월	
경기	경제성장률	5.1	5.0	5.1(1.5)	5.7(1.6)	5.8(0.8)	4.8(0.8)	3.8(0.5)	-	-	
	수요	소비재판매	4.1	5.3	7.1	4.5	3.9	2.5	1.1	-3.7	-
		설비투자추계	8.9	8.6	0.7	9.2	-0.9	0.1	6.1	-7.7	-
		건설수주	9.0	19.3	-5.6	29.5	-3.9	-6.1	-22.8	-23.9	-
		수출	14.4	14.1	9.4	18.2	17.4	23.1	27.1	8.5	-
	공급	광공업생산	8.4	6.8	5.9	10.8	10.6	8.6	5.6	-2.4	-
		취업자수 (만명)	2,315	2,343	2,361	2,358	2,305	2,387	2,373	2,385	2,382
		실업률	3.5	3.2	3.1	3.0	3.4	3.1	3.0	3.0	3.1
수입		18.4	15.3	7.3	25.9	28.9	30.5	43.0	10.4	-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54	60	44	32	-52	-1	-86	49	-	
	무역수지 (억\$)	161	146	45	27	-65	3	-80	-20	-	
물가	생산자물가	0.9	1.4	1.2	3.0	5.1	9.0	11.3	10.7	7.8	
	소비자물가	2.2	2.5	2.3	3.4	3.8	4.8	5.1	4.8	4.5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

□ 금융 동향 : 국채 금리 연중 최저치 경신

○ (해외 금융 시장) 글로벌 달러화 혼조세

- 금리: 단기금락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전주말 대비 소폭 상승 (국채 10년물 : 2.12→2.18%)
- 환율: 유로화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지수가 26년래 최고로 상승하면서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인 반면, 엔화는 일본이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데 따른 영향으로 달러화에 대해 소폭 약세로 전환 (\$/€ : 1.3913→1.4013, ¥/\$ : 89.32→90.46)

○ (국내 금융 시장) 안전 자산 선호 현상 강화

- 주가: 뉴욕증시 약세, 글로벌 경기후퇴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1,180.9→1,117.9)
- 금리: 주초반 단기 금락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상승세로 출발하였으나,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락세로 반전되어 연중 최저치 경신 (국고채 3년 수익률: 3.81→3.68%)
- 환율: 주초반 연말 결산을 앞둔 은행권의 달러매수세 유입 등의 영향으로 급등하였으나, 외환당국의 매도개입설, 수출업체를 네고물량 출회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나 전주말 대비 소폭 강세 시현 (1,290.0→1,299.0)

○ (전망) 연말, 연초 영업일 축소로 금융시장 소강세 지속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7			2008				
		2/4	3/4	4/4	1/4	2/4	3/4	12.19	12.26
국내	거래소 주가	1,743.6	1,946.5	1,897.1	1,703.9	1,674.9	1,448.1	1,180.9	1,117.9
	국고채3년(%)	5.26	5.46	5.74	5.10	5.90	5.74	3.81	3.68
	원/달러	923.8	915.1	936.1	990.4	1,046.0	1,207.0	1,290.0	1,299.0
해외	DOW	13,409	13,896	13,265	12,263	11,350	10,850	8,579	8,469
	Nikkei	18,138	16,786	15,308	12,526	13,481	11,259	8,588	8,599
	미국채10년(%)	5.02	4.59	4.02	3.87	3.97	3.82	2.12	2.18
	일국채10년(%)	1.88	1.69	1.51	1.45	1.60	1.47	1.23	1.21
	달러/유로	1.3542	1.4267	1.4593	1.5788	1.5848	1.4092	1.3913	1.4013
	엔/달러	123.18	114.80	111.65	99.70	106.22	106.11	89.32	90.46
	두바이(\$/배럴)	66.42	76.64	89.06	97.66	136.65	90.60	40.46	36.88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12.24) 기준.